이달의 으뜸중기제품

에코시스 시스템 매트 '윌매트'

미세먼지 걸러주는 기능성 매트 … 외국産 압도

인천공항 출입국 게이트 아래에는 검은색 발판이 펼쳐져 있다. 자세히 살펴보면 평범한 발판이나 카펫이 아니다. 고무 소재의 직선 타일과 카펫 소재의 직선 타일이 번갈아 깔렸다. 고무 타일은 미세먼지 같은 작은 입자를 거르고, 카펫 소재 타일은 액체로 된 오염물질 등을 흡착해 제거한다. 중소기업 에코시스가 만든 '시스템 매트(제품명 윌매트)'다.

에코시스의 윌매트는 인천공항 14개 게이트 외에도 충주공항 제주공항 등 국내 5개 공항에 설치됐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반도체 공장 출입문에도 윌매트가 들어갔다.

김국경 에코시스 대표는 "공항·공장 같은 대형 시설 외에도 위생이 중요한 음식점까지 시스템 매트의 효용성을 널리 알리고 있다"고 밝혔다.

김국경 에코시스 대표가 시스템 매트 '윌매트'의 기능과 장점을 설명하고 있다. 이우상 기자

공항·반도체 공장·빌딩 등 입구 설치 … 오염물질도 제거
국내시장 점유율 50%
IoT 접목해 수출도 추진

◆시스템 매트 알리기 나서

김 대표는 2004년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한 대형 빌딩 출입구에서 시스템 매트를 처음 알게 됐다. 김 대표는 "당시 인테리어 사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스템 매트가 매우 신선하게 다가왔다"며 "국내에 잘 알려지지도 않고 전량 수입 중인 시스템 매트의 가능성이 무궁무진해 보였다"고 말했다.

외국 업체가 만든 시스템 매트를 직접 분해하고 연구개발(R&D)한 끝에 2005년 10월 에코시스를 설립하고 윌매트를 내놨다. 하지만 판로 개척이라는 높은 벽에 부딪혔다. 시스템 매트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이 국내에 거의 없으니 사겠다는 사람은 더더욱 없었다.

판로 개척을 위해 김 대표는 공사장을 직접 찾아가 시스템 매트의 장점을 알렸다. 시스템 매트는 평평한 바닥 위에 까는 일반 매트와 달리 일정 깊이를 파낸 뒤 시공해야 하기 때문에 설계를 담당하는 건축설계사무실을 찾아가기도 했다. 김 대표는 "제품을 들고 무작정 초인종을 누른 뒤 적당한 성씨와 직책을 붙여 '박 실장님을 만나러 왔다'고 둘러댔다"고 사업초기의 어려움을 얘기했다.

◆바닥 손상 막는 윌매트

김 대표가 발로 뛴 성과는 제품 출시 후 6년이 지난 2011년부터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다. 인천공항 게이트에 윌매트를 설치한 것도 이때다. 한 글로벌 기업이 진행한 테스트 결과도 윌매트가 입소문을 타는 것을 도왔다. 출입자 신발에 붙은 오염물질의 80~90%가 윌매트를 통해 걸러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람들이 걸어 다닐 때마다 실내 바닥재가 손상되는 정도도 20~30% 수준으로 줄었다.

윌매트가 인기를 끌자 시스템 매트를 수입해 판매하는 업체들도 하나둘씩 늘었다. 김 대표는 "윌매트보다 값싼 외국산 매트가 들어오고 있지만 품질에서는 윌매트를 당하지 못한다"며 "윌매트가 시스템 매트 시장 50%를 꾸준히 점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야광 신제품 개발

윌매트를 비롯한 시스템 매트는 여전히 국내에서 생소한 제품으로 통한다. 공항은 물론 대형 건물, 공장에서 널리 쓰이고 있지만 물품 분류 번호를 받지 못했다. 조달청 등록도 못했다. 경쟁사가 세 곳 이상 있어야 한다는 독과점 방지 규제 규정 탓이다.

그럼에도 에코시스는 또 다른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있다. 야광 소재를 넣어 불이 꺼져도 두 시간 이상 빛을 내는 시스템 매트를 특허출원 중이다. 김 대표는 "사물인터넷(IoT), 출입통제기술과 연계된 신제품으로 세계시장에 진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광명=이우상 기자 idol@hankyung.com

◆'이달의 으뜸중기 제품'은 이메일(art@hankyung.com)로 신청받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event.hankyung.com)를 참조하세요.
◆이달의 으뜸중기 제품 △에코시스-윌매트 (02)786-7115 △에어봄-무전원 자동물내림 시트 (02)6243-3330 △효성종합-발광 교통안전표지판 (031)871-7284 △토브넷-LED전구 결합형 폐쇄회로(CC)TV (02)3216-3983

"허리둘레 자동으로 측정 복부비만 막는 스마트벨트"

헬스케어 스타트업

강성지 웰트 대표

"게임을 통해 운동하도록 하는 헬스케어 앱(응용프로그램)을 내놨다가 쓴맛을 봤습니다. 사람들의 습관을 바꾸려 했던 게 실패 요인이었죠. 그래서 일상에서 늘 쓰는 물건을 활용해보자는 생각을 하게 됐죠."

강성지 웰트 대표(31·사진)는 8일 스마트 벨트 '웰트'가 나온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다. 웰트는 삼성전자 사내벤처 육성프로그램인 C랩에서 출발한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이다. 지난해 6월 독립하면서 회사명을 제품 이름과 똑같이 지었다.

웰트는 겉으로는 일반 가죽벨트와 다를 게 없지만 버클과 허리띠 안에 센서가 장착돼 있다. 벨트를 착용하면 허리둘레가 자동으로 측정된다. 걸음 수, 앉아 있는 시간, 과식 여부 등의 정보를 앱으로 보내준다. 허리둘레를 관리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복부비만 등을 막아주고, 당뇨와 고혈압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돕는 패션 웨어러블 기기다. 1시간 충전으로 두 달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 회사는 패션 브랜드로부터 러브콜을 받고 있다. 빈폴액세서리는 웰트의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벨트를 19만8000원에 출시했다. 다른 패션 브랜드와도 협의 중이다. 연세대 세브란스병원과는 임상시험을 하기도 했다. 웰트는 일반 소비자 사이에서도 반응이 좋다. 지난해 9월 미국 크라우드펀딩 사이트인 킥스타터에서 1주일 만에 9000만원을 모으기도 했다.

웰트는 섭취량 측정을 더 정교하게 하는 등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다른 생필품에도 관련 기술을 적용하는 등 다양한 연구개발(R&D)을 하고 있다.

웰트는 의사 출신인 강 대표의 독특한 이력 때문에 사내벤처 때부터 주목받았다. 연세대 의대를 나온 강 대표는 2012년 창업 전선에 뛰어들었다.

사람들의 건강관리를 돕기 위해 '오늘의 미션'이라는 앱을 내놨다. 지난해 선풍적인 인기를 끈 포켓몬처럼 특정 장소를 찾아가 스마트폰에 뜨는 문제를 맞히면 커피 할인쿠폰 등을 주는 방식이었다. 사람들을 움직이도록 해 건강관리를 해주는 아이디어였지만 호응을 얻지 못해 결국 1년 반 만에 사업을 접었다. 그는 첫 창업의 실패 경험을 되살려 삼성전자 사내 벤처에서 스마트벨트인 웰트를 개발했다.

김근희 기자 tkfcka7@hankyung.com

캐리어에어컨 최대 반값 노란우산공제회 소상공인에

중소기업중앙회와 캐리어에어컨은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를 대상으로 냉난방기 제품 알뜰구매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력을 통해 캐리어에어컨은 노란우산공제 소상공인에게 시중가 대비 최대 50% 할인한 가격으로 가정·상업용 냉난방기, 제습기, 공기청정기, 소형 냉장고 등을 판매한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는 다른 조건 없이 할인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캐리어에어컨은 인천국제공항, 국립중앙박물관, 킨텍스 전시관 등에 고효율, 친환경 공조기기를 공급하고 있다.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

"독일처럼 가업승계 많아야 명문장수기업 나와"

中企人 한마디

조병선 가족기업연구원장

"독일의 제약업체 머크와 자동차 부품업체 보쉬, 명품 세탁기업체 밀레는 모두 가족기업입니다. 독일 히든챔피언(글로벌 강소기업)의 대부분도 가족기업이고요. 가족기업이 중요한데 한국에선 아직도 가족기업의 대를 이은 승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습니다."

조병선 숭실대 중소기업대학원 교수(63·사진)가 사단법인 한국가족기업연구원을 설립한 이유 중 하나가 이런 시각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다. 쾰른대 법학 박사 학위를 받은 조 원장은 기업은행 경제연구소장 출신이다. 2015년 3월 독일의 가족기업들이 글로벌 챔피언으로 도약하는 것을 보고 한국가족기업연구원을 출범시켰다.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한국에도 전통 있는 명문 장수기업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였다.

조 원장은 "가족기업은 가치관 공유를 통해 결속력을 다질 수 있고 단기 성과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영할 수 있는 등 장점이 무척 많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업승계가 원활하지 못하면 가족 간 분쟁이 생길 수 있고 자칫 '족벌주의'로 흐를 위험도 있다고 덧붙였다.

연구원은 경영권과 소유권의 원활한 승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조 원장은 "얼마 전 한 기업인이 후계자 선정 없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서 네 명의 자녀가 극심한 분쟁에 휘말린 적이 있다"며 "자칫 기업이 풍비박산 날 위기에 봉착했다"고 말했다. 그는 "두 달 동안 개개인의 입장을 듣고 적합한 승계방안을 제시해 이를 해결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부분의 경영자가 소유권 문제가 해결되면 승계에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론 그렇지 않다"며 "후계자를 누구로 할지, 배제된 사람에겐 어떤 대안을 마련해줄지, 후계자에겐 미리 어떤 교육을 할지 등 사업승계엔 수많은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원장은 "지난 2년 동안 다양한 후계자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했고 이를 바탕으로 가족기업의 사업승계를 종합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김낙훈 중소기업전문기자 nhk@hankyung.com

중진공, 정책자금 3조5000억 조기집행

수출·창업기업 지원 강화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임채운·사진)은 중소기업청과 함께 올해 중소기업 정책자금 3조5850억원을 조기 집행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중진공은 수출과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경제 활력을 높이고 기업 구조조정 등 경기 리스크 대응에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중진공은 수출 증대와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한 기업을 대상으로 성과가 큰 기업에 금리를 우대해 주기로 했다.

시설 투자 활성화를 위해 최근 1년간 10억원 이상 투자한 기업에 적용 금리를 0.3%포인트 추가 차감하는 등 성과창출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할 계획이다. 중진공은 정책자금 신청을 받고 있다.

이우상 기자 idol@hankyung.com

로또 40억 당첨자! 1, 2, 3등 한번에...

– 로또플레이 골드회원 가입 5일만에 12억 당첨 화제!
– JTBC, MBN, 채널A 등 방송언론에 당첨금 전액기부 보도!

오정식 대표

누구나 한 번쯤 '내가 만약 로또 1등에 된다면..' 인생역전을 꿈꾸지만 나와는 동떨어진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 실제로 "꿈자리가 좋아서" "이번만큼은" 이라는 생각으로 로또를 구매해도 현실은 '꽝' 운이 좋아도 5등되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허탈감만 항상 느끼게 된다. 이제 수학적 접근방법으로 당첨확률을 높여 '로또 당첨은 운이 아니라 과학이다' 라는 말까지 등장했다.

10년이 넘는 분석 노하우 와 자체 개발한 예측시스템(통계기반)을 통해 꾸준히 로또 1등을 배출, 로또 마니아들에게 '온라인 로또 명당' 이라고 불리는 로또 분석 전문 업체 '로또플레이'(대표번호:1666-6645)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로또플레이는 국내 최단기간 실제 1등 당첨자를 배출하면서 지금까지 1등 164회, 2등 798회, 3등은 24,872회를 배출해내고 있다. 실제 1등 당첨 영수증과 거래내역서까지 홈페이지(LOTTOPLAY.CO.KR)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어 신빙성까지 더하고 있다.

최근엔 로또 정보업체 로또플레이의 당첨 후기 게시판에는 705회 로또 1등 당첨자라고 밝힌 50대 여성이 40억 로또 1등에 당첨된 것뿐만 아니라 2등과 3등이 동시에 당첨된 인증 후기를 전하며 '로또플레이' 의 신뢰성과 예측시스템이 주목을 받고 있다. '로또플레이' 는 요행을 넘어 정확한 통계와 확실한 당첨 사례들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로또정보 전문 업체다. 정모씨(47세/여)는 로또플레이 골드회원에 가입하고 예상번호를 문자로 제공받은지 5일 만에 로또 1등(12억 6천만원)에 당첨되는 행운을 거머쥐었고, 제 641회차에서는 인기 레이싱 모델이 로또 2등에 당첨된 비결이 바로 예상번호를 제공해 준 '로또플레이' 덕분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져 큰 화제를 모았다.

'로또플레이' 는 골드회원으로 가입하신 회원님들께 통계기반(26단계 필터링)으로 만들어진 1등 예측시스템을 통해 예상번호를 매주 문자로 전송해 준다.
(20게임 / 수량 변경가능)

한편 로또플레이는 실제 1등배출 기념 최대 70%할인 이벤트 행사를 진행중이다.
(최대 70%할인 가입비: 6개월 49,000원/1년 69,000원/3년 124,000원)
대표번호 1666-6645 전화 한통으로 가입이 간편하다. (카드 무이자 5개월 할부)

〈로또플레이 사진제공: 40억 1등당첨 영수증〉

〈로또플레이 사진제공: 12억 1등당첨 영수증〉